고육미술관 동로
Museum-TONGRO

엉킨 실

글 그림 이 혜 승

[교실 속 그림책] 엉킨 실

2017년 6월 3일 초판발행 2017-00041

| 지은이 | 이혜승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7790-26-6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이혜승과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머 리 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2017년 6월 3일
교사 이 현 아

작가의 말

<엉킨 실>은 어린이작가 이혜승의 두번째 창작그림책이다. <학사모의 질문>으로 사포 세대의 청년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함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어린이작가 이혜승은 이번 작품에서 열 세 살 또래들의 속마음을 엉킨 실타래로 표현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은 가득 엉켜있는 속마음을 빨간 실타래에 담아 풀어낸 것이다.

첫 번째 창작그림책에서 신문과 미디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콜라주 작업을 진행했던 어린이작가 이혜승은 <엉킨 실>에서 빨간 털실과 사진 매체를 활용한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그림책 창작 과정에서 이혜승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서사로 이끌어내는 것에 누구보다 탁월함을 보이며 뛰어난 글 작업을 펼쳐내었다. 그러나 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중 세르주 블로크의 '선'을 활용한 작품 표현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혜승은 빨간 털실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주목성과 촉각적인 질감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연필 선을 대신한 '빨간 털실의 선'에 투영하였고 복잡하게 엉켜있는 속마음을 엉킨 실로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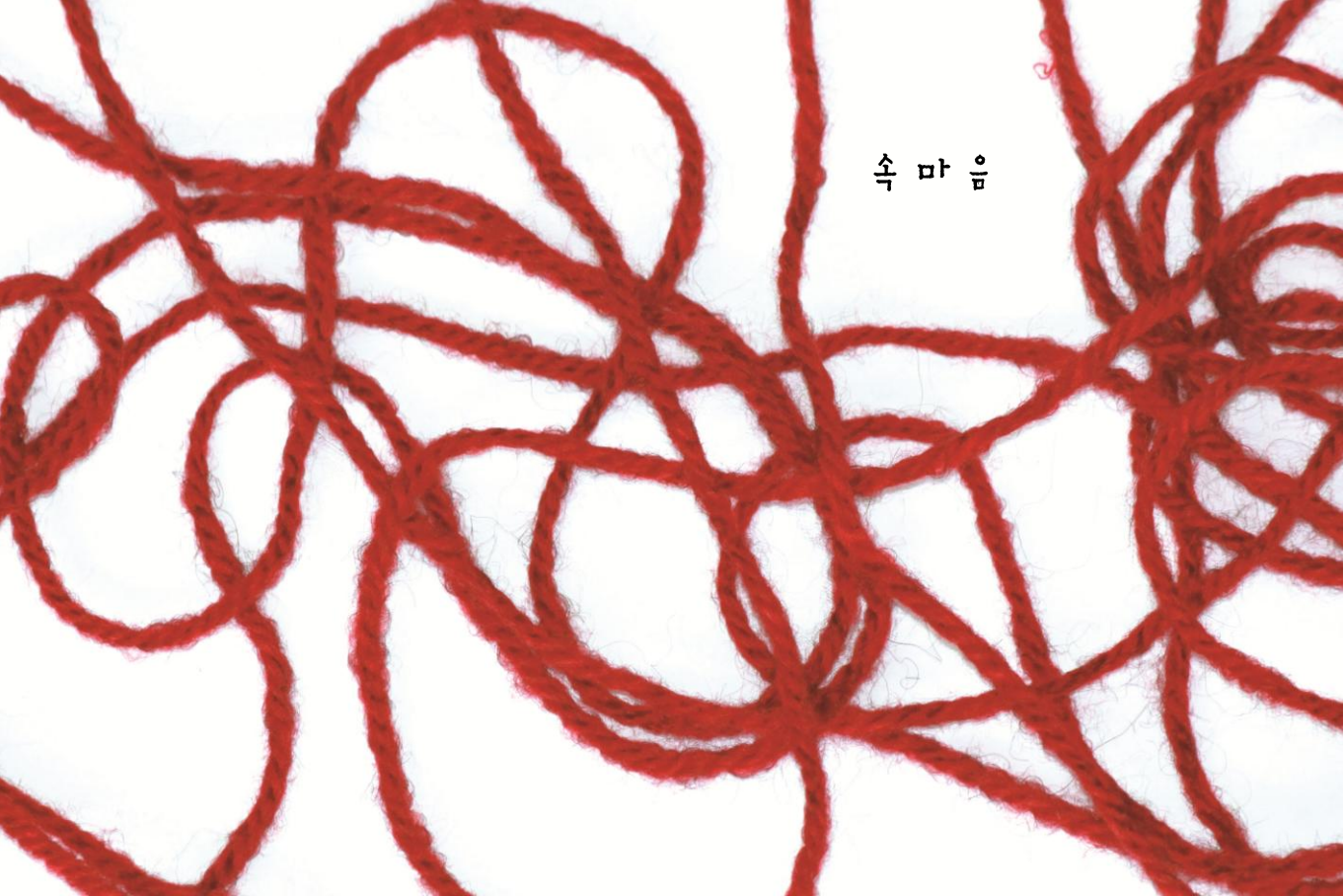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빨간 털실을 엉키게 하고 풀어보고 자르고 묶어 보았던 일련의 과정을 카메라 앵글에 고스란히 담은 이 작품은 제작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은유적인 퍼포먼스로서 예술적 의미를 가진다.

"별일 아니야, 그냥 무시해."
아이가 여러 번 곱씹어 어렵게 털어놓은 고민에 대해, 그저 '애들이 무슨' 하며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말을 내던지는 무심한 어른.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별것 아닌 것들이 내게는 자꾸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그런 나 자신을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한마디 말. "별일도 아닌데, 무시 못하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열 세 살 또래 친구들은 무심코 던져진 이 한마디 말이 어떠한 폭력보다도 큰 상처였다고 고백한다.
무시하려 노력해도 자꾸만 기어 나와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 하나. 그것과 직면하지 않은 채 그저 꾸역꾸역 살아가던 어느 날, 자꾸 길어진 실은 그만 엉키고 만다. 엉킨 실에 발이 묶인 나는 그제야 실을 돌아다보며 엉킨 부분을 찾으려 매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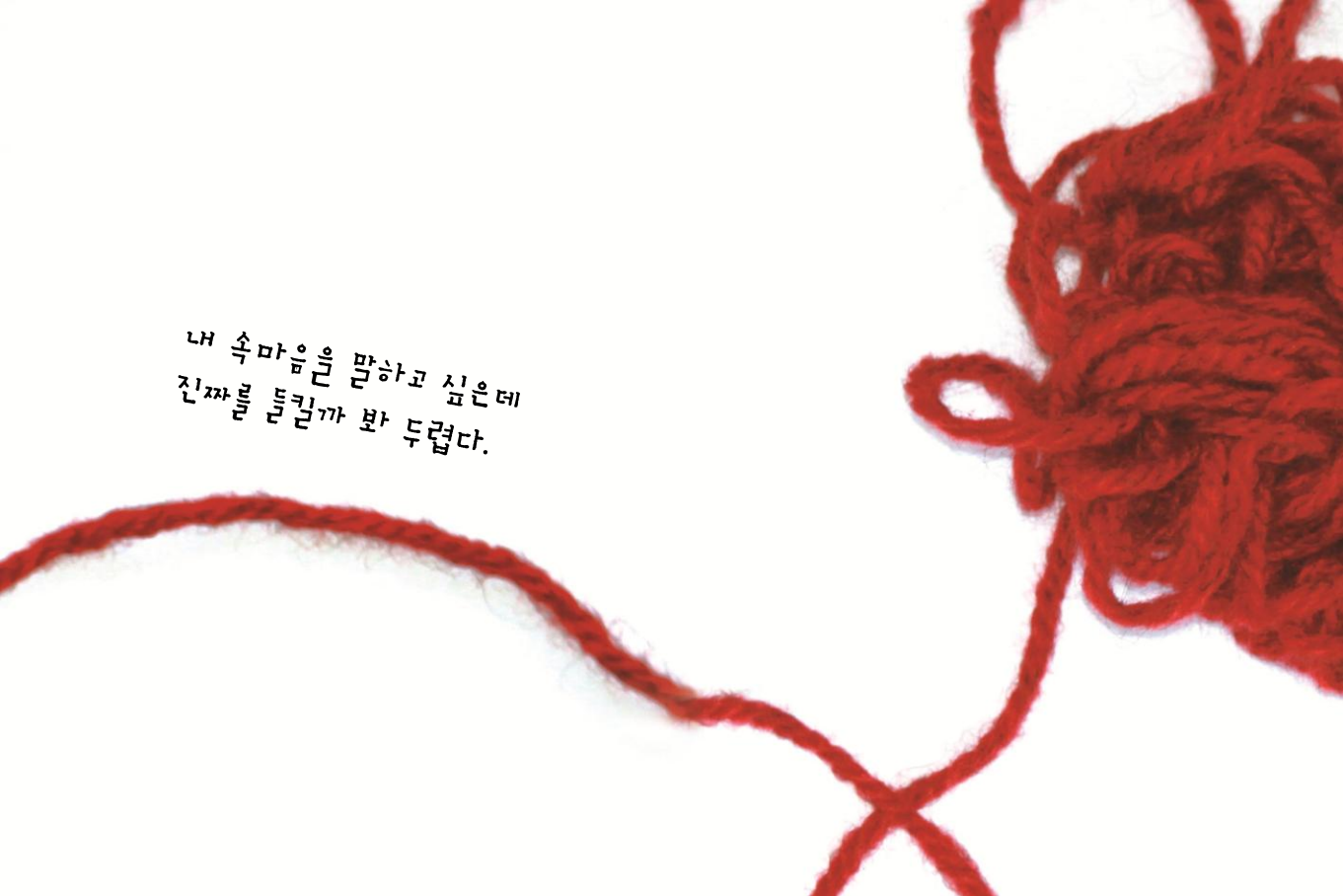
어린이 작가 이혜승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어렵고 지루하지만 가위로 쉽게 잘라버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다시 엮는다 해도 상처와 같은 매듭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 엉킨 실은 자신이 직접 부딪치지 않는 한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동안 무심코 외면했던 자신의 실타래와 직면하고 이를 풀고자 엉킨 부분을 직접 매만지는 것, 어린이작가가 이 작은 책에 자신의 열정을 모두 담은 것은 오로지 그것을 위함이다.

오늘 많이 속상했지만
부모님께 괜찮은 척을 했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다.
마음이 온통 뒤엉켜버렸다.


속 마 음

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진짜를 들킬까 봐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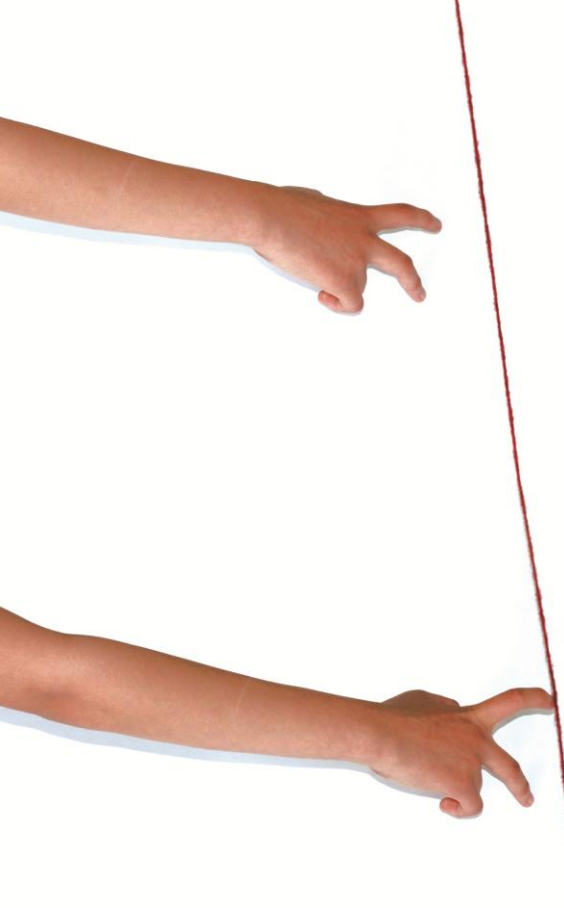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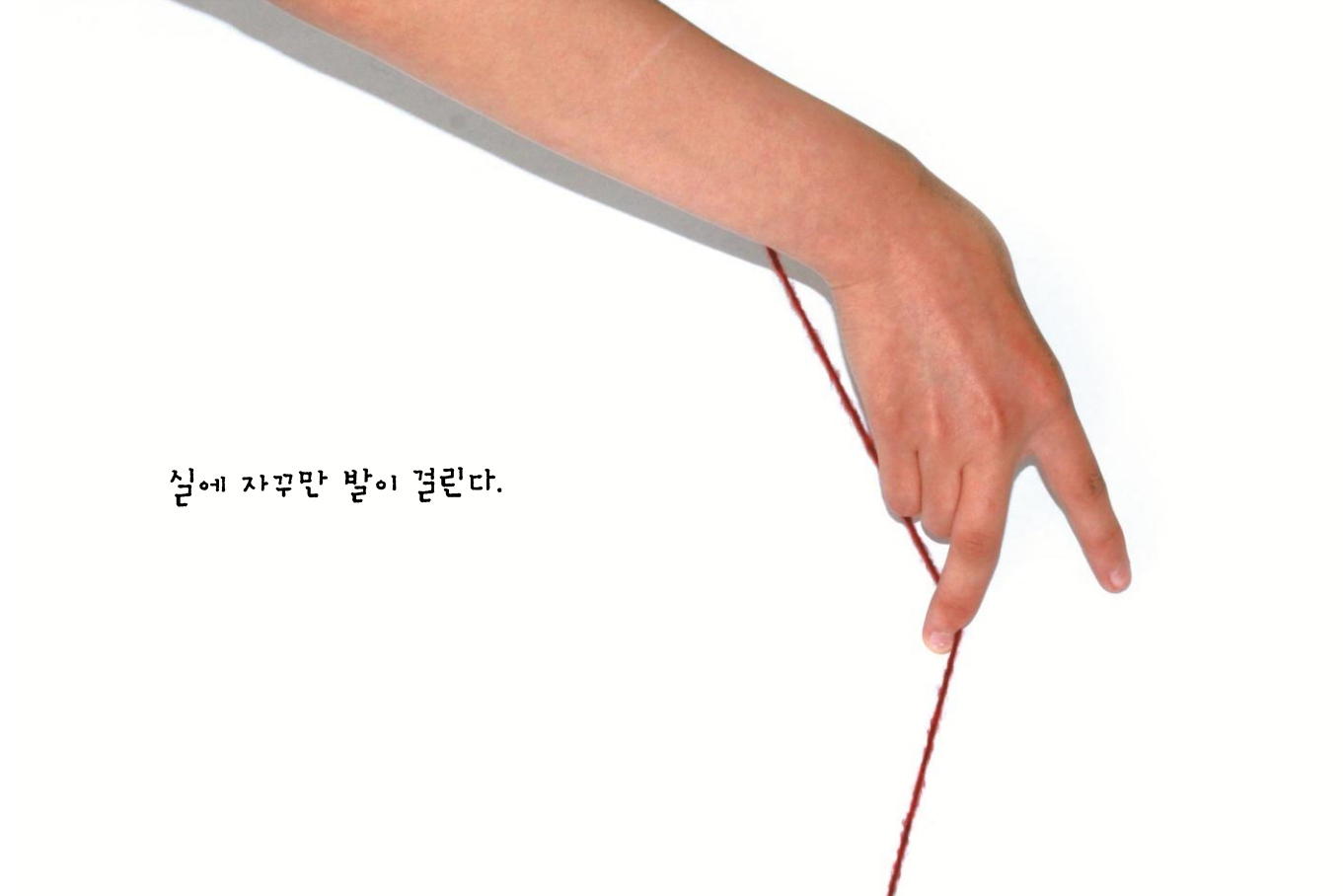
그런데
실 하나가 따라온다.
"야, 왜 자꾸 따라와? 저리가."

그 다음날 아침, 또 따라온다.

"어? 더 길어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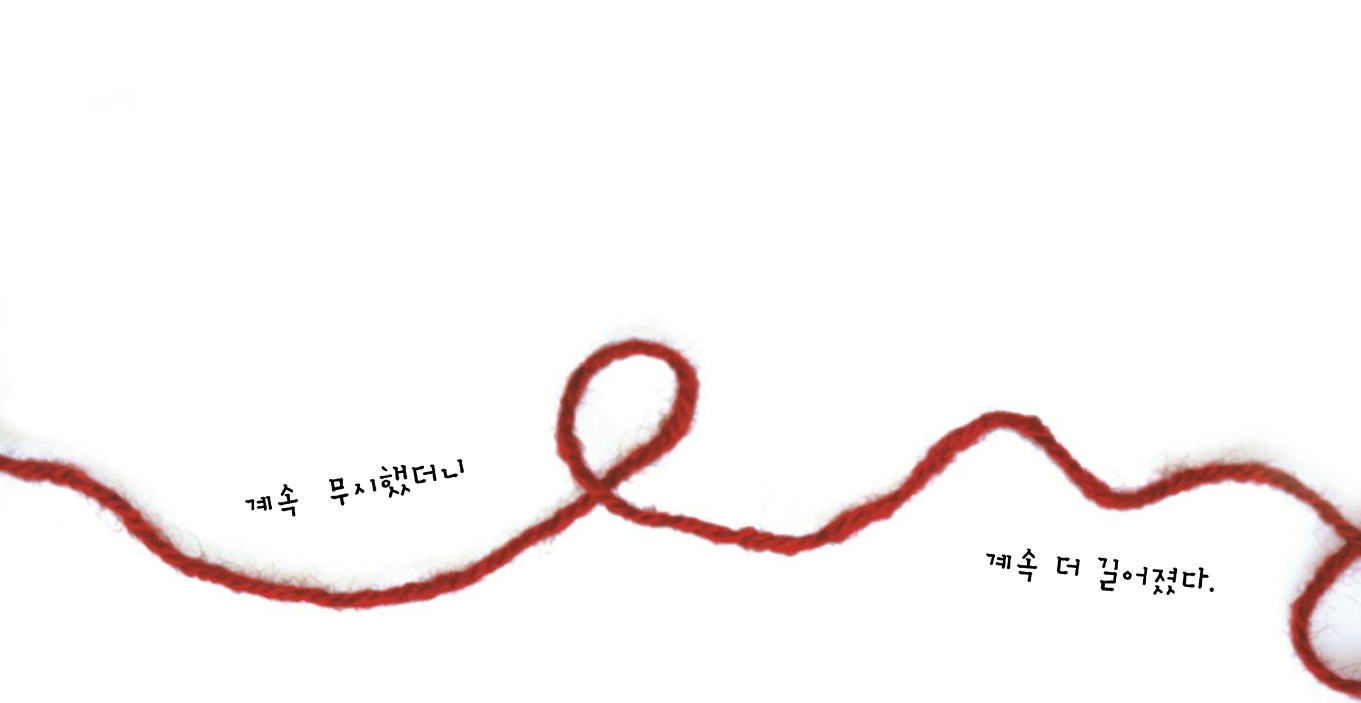


그냥 무시하고 걸어가고 싶은데,



실에 자꾸만 발이 걸린다.

실은 자꾸만 나를 따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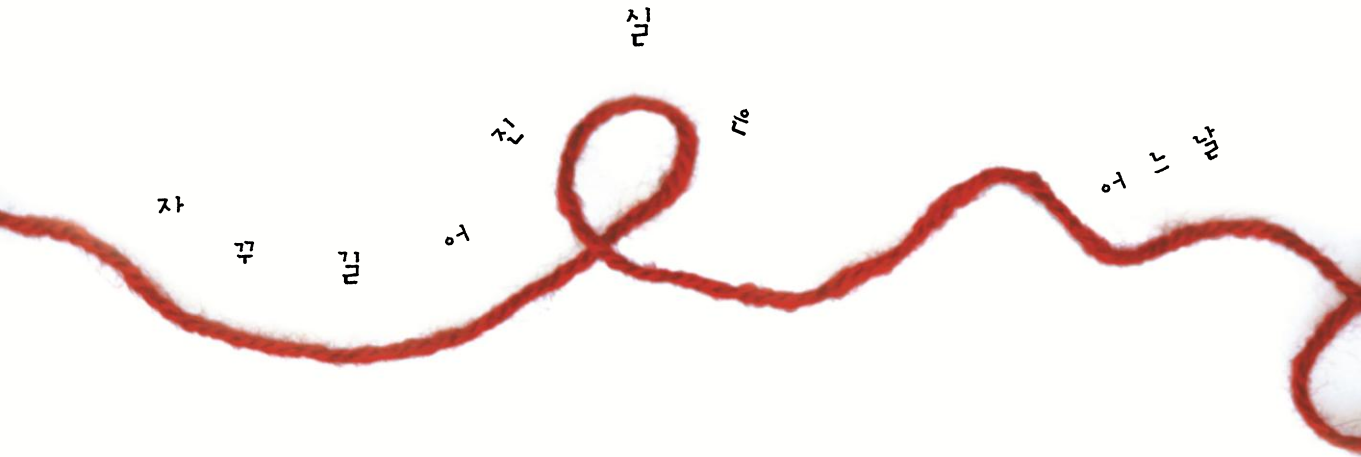

계속 무시했더니
계속 더 길어졌다.

"실이 자꾸 마음에 걸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별일 아니야. 그냥 무시해."

"아무리 무시해도… 자꾸 생각나.
힘들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


실
자
꾸
길
어
진
뜨
어
느
날

엉키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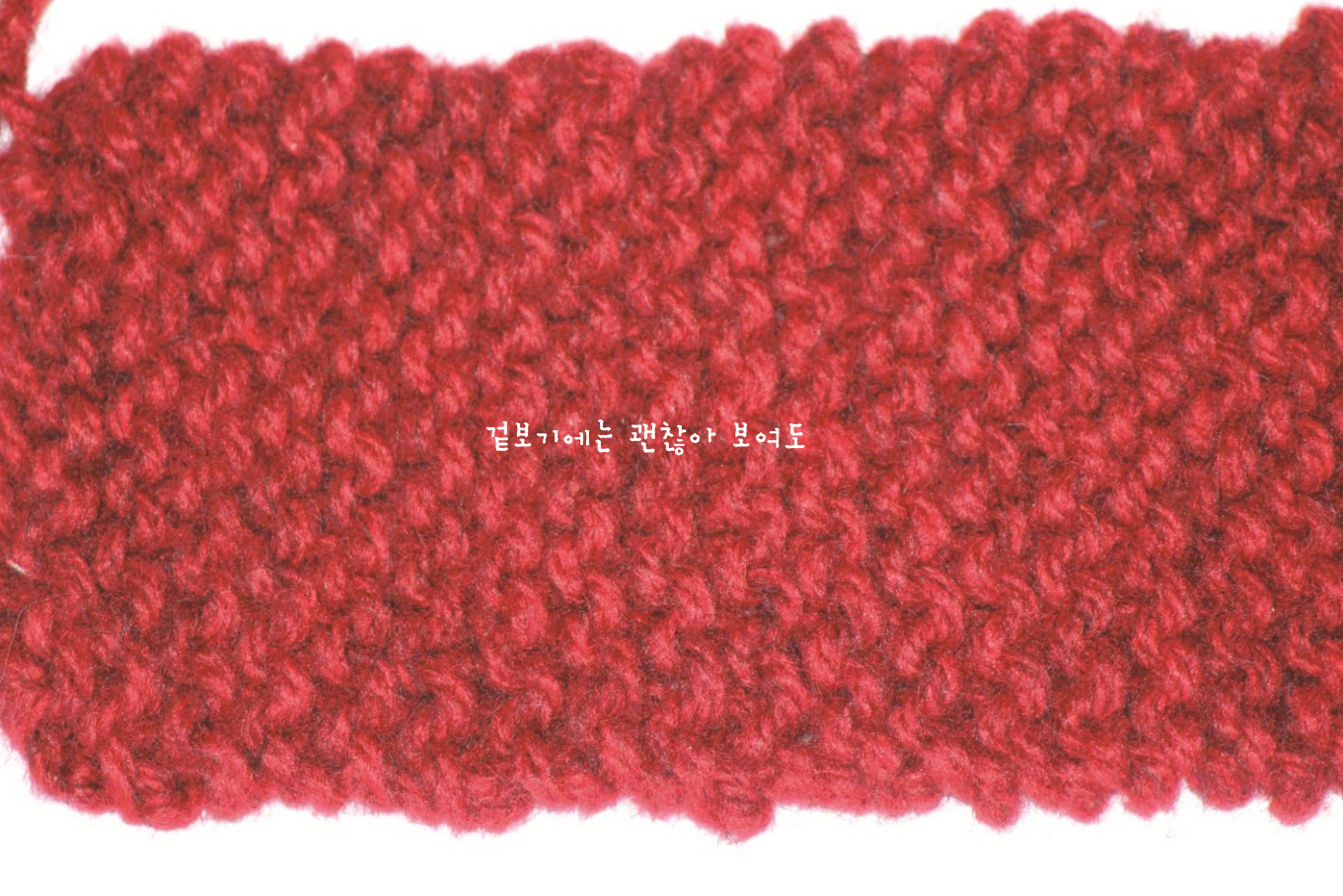
엉킨 실

내 속마음은

엉

킨

실 타 래 이 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안은 엉켜있다.

엉켜있는 실을 푸는 것은
지루하고 힘들다.

그냥
싹 뚝

잘라버리면
안될까?

하지만
한 번 잘라버린 실은

절대
원래대로
붙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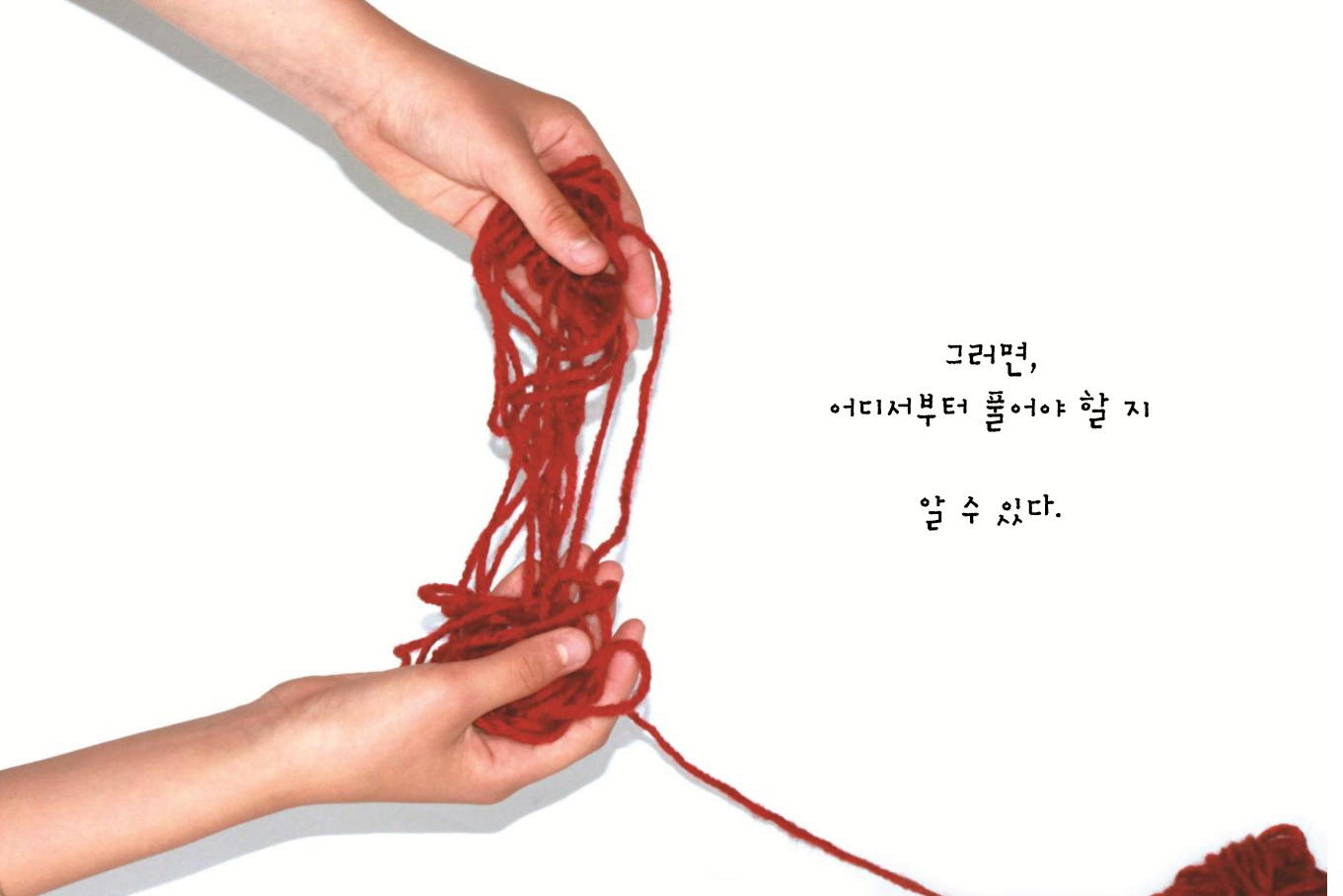
Scotch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 것처럼

싹 뚝 자른 실은 다시 묶어도 매듭이 남는다.

엉킨 실을 풀기 위해서는
내 손가락으로 만져야 한다.

엉킨 실의 끝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지

알 수 있다.

엉킨 실은
자신이 부딪치지 않는 이상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 실을 자르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다시 묶는다고 해도
매듭이라는 상처가 남는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자신의 발을 자꾸만 걸어
넘어지게 하는
엉킨 실

있지 않나요?

만져보세요,

가만히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엉킨 실 [전자자료] / 지은이: 이혜승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7
전자책 책
ISBN 979-11-87790-26-6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교육미술관 통로 Museum-TONGRO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75810
9 791193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